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안 성결론 —한국 개신교의 개혁과 연합, 성숙을 위한 제안*

장기영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한글초록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존 웨슬리의 언약신학을 소개하고, 그 구조와 특징, 무엇보다 성결론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으셨으나, 타락 후 인류와는 행위언약을 폐기하고 은혜언약을 맺으셨다고 가르쳤다. 은혜언약 아래에서의 두 시대를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로 구분한 후, 유대교 시대도 그리스도의 증보사역의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시대로 가르쳤다. 기독교 시대에 대해서는 유대교 시대보다 더 뛰어난 계시와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 행위언약, 타락 후 인류와 은혜언약을 맺으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087)

행위언약의 지속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언약신학의 구조는 이중예정론을 뒷받침한다. 유기된 자에게는 행위언약이 적용되며, 택자에게는 은혜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행위언약의 엄격한 요구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논리로 이 세상에서 성결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칭의는 은혜언약의 요구인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전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웨슬리 언약신학의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두 신학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종교개혁 신학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약신학은 두 전통 간 신뢰와 화합, 협력을 가능케 하는 신학적 요소가 될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언약신학은 웨슬리 신학의 뼈대를 형성하고 특징을 부여하는, 웨슬리 신학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그럼에도 개혁주의 전통이 언약신학을 소중한 신학적 자산으로 여겨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온 것과 달리, 웨슬리안 전통은 언약신학이 웨슬리 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제시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웨슬리는 1746년에 출판한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자신의 언약신학의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을 통해 설명한다.¹⁾ 이 설교 외에도 언약신학에 관한 1차 자료로는 웨슬리의

1)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앞으로 설교, “제목”, 번호로 축약).

설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1746),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1750), “결혼예복에 대하여”(1790), 그리고 1746년 5월 13일자 감리교 연회록 및 『신약성서주해』(예, 히 8:8-12) 등이 있다.²⁾ 웨슬리 학계는 오래 전부터 웨슬리가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신학의 뼈대로 삼은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언약 하에서 섭리시대(dispensations) 구분을 성결론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왔음을 알고 있었다.³⁾ 그럼에도 웨슬리가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어떻게 수정해 자신의 신학의 뼈대와 특징으로 삼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스탠리 로우즈(Stanley J. Rodes)는 그동안 웨슬리 언약신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로, 첫째, “언약신학의 본질적 특성이 웨슬리의 신학적 사고 구조와 면밀히 얽혀있음”에도 웨슬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학과 언약신학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둘째, 언약신학은 개혁주의 전통의 것이기에 웨슬리 신학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 셋째, 언약신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웨슬리 신학 연구의 결과물을 축적되어온 그동안의 관행, 넷째, 웨슬리에게서 이미 발전되어 있던 언약신학적 요소를 간과한 채, 1770년대 이후의 존 플레처의 시대구분 이론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온 오류 등을 언급한다.⁴⁾

바람직한 일은 최근 국내외에서 웨슬리 언약신학의 중요성에

2)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1:203 (앞으로 BE로 축약), 각주 2번 참고.

3) John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An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Francis Asbury Press, 1960, 1985), 112-115 참고.

4) Stanley J. Rodes, *From Faith to Faith: John Wesley's Covenant Theology and the Way of Salvation*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3), 8-12.

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는 2011년 웨슬리 언약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12년 세계 웨슬리 학회(Wesleyan Theological Society)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2012)을 받은 스탠리 로우즈의 연구이다. 그의 논문은 2013년 단행본⁵⁾으로 출간됐으나,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다. 필자 역시 최근 출판한 책에서 웨슬리의 언약신학이 웨슬리 율법관과 구원론, 특히 성결론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시했다.⁶⁾ 필자의 책을 제외하면 웨슬리 언약신학에 관한 국내 연구는 황덕형이 스탠리 로우즈의 연구에 의존해 웨슬리 언약신학을 예정론 중심의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비교한 소논문이 전부다.⁷⁾

본 논문은 언약신학에 관한 웨슬리 자신의 언급과 기존 연구의 통찰을 활용하고 종합해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대비되는 웨슬리 언약신학의 독특성과 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목표와 진행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웨슬리 신학에서 언약 개념은 단지 신학의 한 주제가 아니라 구원론의 뼈대로 작용하며, 특히 그의 성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웨슬리 언약신학의 특징을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비교해 양자의 두드러진 차이점과 특징이 무엇인지 비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앞의 책.

6)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19).

7) 황덕형, “웨슬리의 계약사상 이해”,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제2회 월례연구모임(2014.11.26.) 자료집.

II. 웨슬리의 언약신학

1. 행위언약

웨슬리는 행위언약을 “아담이 낙원에 있었을 때 맺은 언약” 또는 “낙원에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설명한다.⁸⁾ 웨슬리는 “이 최초의 법 또는 계약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의 본질은 온전한 사랑이라면,¹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명령을 새기신 곳은 “인간의 마음 … 그 영의 가장 깊은 중심”이었다. 웨슬리는 그 이유를 “율법이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하시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 있어 하늘의 태양처럼 매우 선명하게 빛나게 하시기 위함”으로 설명했다.¹¹⁾

웨슬리는 행위언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죄없는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인간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의”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인간의 속마음과 외적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마 5:48; 22:37)는 것이다.¹²⁾ 둘째, 거룩함의 정도에서 완벽함을 요구한다. 즉 “하나님

8)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서문. 1; I. 1.

9) 같은 곳, 서문. 3.

10)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123-125.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그 내용에서 인간의 타락 후 주어진 모세의 법이나 그리스도의 법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7), 83-84 (앞으로 Plain Account로 축약).

11)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 III.

12)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2.

의 뜻에 대한 마음과 삶의 일치가 완벽해야 함을 요구하고 ... 어떤 사소한 미진함도 결코 허락하지 않기 ...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더라도 그 순종이 모든 힘을 다해 가장 높은 수준과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혼의 모든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 행위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된다.”¹³⁾ 셋째, 거룩함의 지속성에서도 완벽해야 한다. “마음과 삶의 온전한 거룩함은 완벽히 지속되어 창조 시부터 ... 조금도 중단됨이 없어야 했다.”¹⁴⁾

이처럼 행위언약의 요구는 절대적이고 엄격했음에도 웨슬리는 이담이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설교 “하나님의 형상”(1730)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공정하고 선명하며 민첩하고 폭넓은 지성”, “이성적이고 정돈되어 있으며 균형잡힌 감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의지의 자유” 등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기능(faculty)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property)을 닮아 있었다고 설명한다.¹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창조 시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사고와 언어와 행동의 유일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듯, 창조주의 솜씨에 의해 창조된 인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이 순수하신 분이시듯, 태초에 인간은 모든 죄악의 오점으로부터 순결했습니다.¹⁶⁾

13) 같은 곳, I. 3.

14) 같은 곳, I. 4.

15) 설교, “하나님의 형상”, I. 1-3.

16) 설교, “신생”, I. 1.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자체였습니다. 사랑이 그의 영혼 전체를 채웠고, 사랑만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사랑의 지배를 받았고, 사랑이 아닌 다른 열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 그 사랑의 불꽃은 끊임없이 먼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산인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 형상을 지닌 타인에게로 향했습니다.¹⁷⁾

웨슬리는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정의, 자비와 진리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이해력, 부패하지 않은 의지, 의지의 온전한 자유”¹⁸⁾를 가져 “이해에서든, 성정에서든 어떤 결함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행위언약의 요구는 “아담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 그가 처음부터 가졌던 능력과 균형을 이룬 것이었다”¹⁹⁾고 설명한다.

웨슬리는 행위언약의 요구는 “인간이 창조 시 소유하고 있던 성결과 행복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설명한다.²⁰⁾ “만약 아담이 모든 일에서 계속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향유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했을 것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있었다”²¹⁾는 것이다. 웨슬리는 만약 아담의 순종이 성공적이었다면 “순종을 시험하는 기간이 끝난 후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17) 설교, “하나님의 형상”, I. 23.

18) 같은 곳, I. 4.

19) 설교, “하나님의 형상”, I. 1-4; “믿음에 의한 칭의”, I. 2-3; “우주적 구원”, I. 2; “신생”, I. 1.

20)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서문. 1; I. 1.

21)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 4.

되었을 것”²²⁾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²³⁾

2. 은혜언약

웨슬리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우신 언약을 “은혜언약”으로 칭하면서, 이를 타락 후 모든 인간이 온전한 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행위언약을 종결짓고 새롭게 세우신 언약으로 설명했다.²⁴⁾ 은혜언약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으라”는 것이다.²⁵⁾ 즉, 이제부터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며, 영회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은혜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의 법”(롬 3:27)으로도 불렀다.²⁶⁾

아담의 타락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의 상실(도덕적 형상)과 손상(자연적, 정치적 형상)을 초래했다.²⁷⁾ 죄인은 타락한 영혼과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무질서한 육체의 결합으로 인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판단과 실천에서의 불완전함, 실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2)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4; “믿음에 의한 칭의”, 1. 2.

23)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 3-5; “신생”, I. 2;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서론. 1.

24) Charles A. Rogers, “The Concept of Preventive Grace in the Theology of John Wesley”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7), 113-127.

25)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서론. 3; I. 8.

26) Plain Account, 84.

27) 설교,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II. 6; “하나님의 형상”, I. 1; “신생”, I. 1; Leo G.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8), 148-149.

심지어 성결의 은혜를 받아 도덕적 형상을 회복한 신자라도 자연적, 정치적 형상의 손상으로 수많은 결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²⁸⁾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²⁹⁾

아담은 타락했다. 그 결과 그의 썩지 않던 몸은 썩게 되었고 영혼에 장애물이 되어 그 작용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명확히 이해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이처럼 이해와 판단이 잘못된 채로는 바르게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사람은 마치 숨쉬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듯,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담에게 요구된 것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³⁰⁾

웨슬리는, 죄인이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종결지으셨기에, 우리는 “아담의 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³¹⁾고 설명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롬 10:4)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언약으로 인해 완전한 행위로 구원 얻는 행위언약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³²⁾

28)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 8; “완전에 대하여”, I. 3-4; Plain Account, 21-22, 84;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148-149.

29)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I. 5.

30) Plain Account, 83-85.

31) 같은 곳, 84;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1-3.

32)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1-3.

3. 은혜언약 시대의 구원론적 충분성

웨슬리는 은혜언약 아래에서의 두 시대(dispensations)를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³³⁾로 구분지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의 공통점은 두 시대 모두 은혜언약에 속한다는 점이다. 웨슬리는 구약 시대 신자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말은,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만 할 뿐 이길 능력을 주지 않았기에 그들이 ‘두려움과 속박’ 속에 살아갔음을 의미했다³⁴⁾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구약의 신자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행위언약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했다.³⁵⁾

웨슬리는 설교,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1788)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구약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 고넬료(행 10:2)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사도행전 10:4(“네 기도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씀을, 은혜언약 아래에서는 구약적 신앙을 가진 신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구절로 설명했다. 그 외에도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신 13:4; 전 12:13; 사 1:16-17; 50:10)에 관한 말씀을 구약적 신앙의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했다.³⁶⁾

33)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I. 8;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1 John 2:8; Heb 8:7-8 (앞으로 ENNT로 축약).

34) ENNT, Rom 6:14

35) Rodes, *From Faith to Faith*, 80.

36) 설교,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 13; Rodes, *From Faith to Faith*, 121-122. 각주 65번 참고.

웨슬리가 은혜언약 아래에서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그의 신학적 사고 뿐 아니라 목회적 관심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1768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직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안 볼턴(Ann Bolton)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³⁷⁾ “비록 낮은 단계일지라도(in a low degree)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납하셨습니다”,³⁸⁾ “아직은 자녀의 상태가 아닌 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복된 일입니다”³⁹⁾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러면서도 “종의 신앙의 상태에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⁴⁰⁾라는 권면을 잊지 않았다.⁴¹⁾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신자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한다는 권면이 자주 나타나는데,⁴²⁾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를 더 성장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신자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악용해 태만과 방종, 율법무용론에 빠져드는 경향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된 것이다.⁴³⁾

웨슬리가 기독교 시대에 비해 결핍되거나 열등한 요소가 있음에

37)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John Telford, 8 vols, (London: Epworth Press, 1931), 5:86 (앞으로 Letters로 축약)

38) Letters 5:197.

39) Letters 5:207.

40) 설교,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 13

41) Rodes, *From Faith to Faith*, 23-28.

42) 같은 책, 14-36, 109-125

43) 같은 책, 125.

도 유대교 시대의 신앙이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고 여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과 정도가 시대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⁴⁴⁾는 확신 때문이었다. 스탠리 로우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슬리는 구원론적 충분성은 복음이 얼마나 완전히 계시되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계시의 온전성이 구원의 비결이라면 구원론적 충분성은 오직 복음 시대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는 은혜언약의 구원론적 충분성은 ‘창세 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온전함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즉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온전하기에 모든 시대의 타락한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설교 “불법의 신비”(1783)에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토대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은 구약 시대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즉 온전히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고,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과 후손에게 죄와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자는 인간을 아무런 도움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고, 즉시 “자신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사랑하는 성자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은혜 뿐 아니라 창조 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위대한 치료자

44) Wesley, “Extracts from the Works of Stephen Charnock, “ ACL, 39:114-115.

Rodes, *From Faith to Faith*, 137에서 재인용.

45) Rodes, *From Faith to Faith*, 137에서 재인용.

로 정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첫 언약 때부터 즉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양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은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은”(히 11:4) 아벨입니다. 그때로부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같은 구원에 참여해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⁴⁶⁾

웨슬리가 구약적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행 10:35)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론적 표준”으로 여겼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구약의 신자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⁴⁷⁾ 그럼에도 웨슬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구약적 의미의 신앙을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신약적 의미의 신앙을 “자녀의 신앙”으로 구분짓는다. 그리고 이 구분을 토대로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갖는 종의 영에서 자녀가 갖는 사랑의 영으로 그 신앙이 진전해 나아가야 함”⁴⁸⁾을 강조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신앙 사이에는 구원론적 충분성이라는 공통분모 외에 매우 큰 차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4.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성결의 은혜

웨슬리는 기독교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 유대교

46) 설교, “불법의 신비”, 2-3.

47) Rodes, *From Faith to Faith*, 120-121.

48) 설교,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 14.

시대보다 “훨씬 완전한 시대”로 보았다.⁴⁹⁾ 웨슬리는 다윗이 구약 인물 중 성령의 은혜를 크게 누린 사람이더라도, 그 역시 신약 시대에 부여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⁵⁰⁾ 그는 베드로전서 1:10(“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주해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여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고 설명한다.⁵¹⁾ 마태복음 11:11(“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에서는 다음의 삼단논법을 이끌어냈다. (1)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자녀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아브라함, 다윗, 어떤 유대인도 요한보다 크지 않았다. (2)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3) 유대교 시대가 나뉘는 영광을 가졌더라도, 기독교 시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영광의 시대다.⁵²⁾ 나아가 히브리서 8:7-8(“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해에서도 기독교 시대의 우월성을 “(1)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승인되었다. (2) 감당하기 힘든 의식과 제사에서 해방되었다. (3) 영적인 기독교를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4) 성령께서 더 강력히 역사하신다. (5) 모든

49) Letters 7:252.

50)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on the Old Testament*, Psalm 51: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I. 8.

51) *ENNT* I Peter 1:10-11.

52)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I. 8.

신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 (6) 결코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⁵³⁾ 등으로 열거했다.

웨슬리의 설명에서 기독교 시대의 탁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기독교 시대에는 율법과 복음의 더 온전한 계시가 주어진다. 웨슬리는 기독교 시대의 특권을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진리를 계시하고 증거하며 변호”하시는 것으로 설명한다.⁵⁴⁾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겹겹이 쌓여진 마음의 모든 기만을 뚫고 … 모든 측면에서 죄의 깨달음을 일으켜”⁵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종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 이미 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증거(롬8:15-16)를 통해 그들 영혼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적 인상을 각인시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 나같은 사람에게까지 화해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⁵⁶⁾ 하나님 자녀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⁵⁷⁾

이러한 기독교 시대의 특징과 연결된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능력 부으심이다. 웨슬리는 성령의 계시의 결과를 신자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⁵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웨슬리는 히브리서 8:12(“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53) *ENNT* Heb 8:7-8.

54)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 1-5; “신생의 표적”, I. 1-3; *ENNT* John 14:12-17.

55)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 IV. 1; 설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II. 1-10;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II. 1-7.

56) 설교, “성령의 증거 I”, I. 7.

57) 설교, “믿음에 대하여”, I. 11-13.

58) 설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II. 1-5.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을 다음과 같이 주해했다.

내가 저희를 의롭다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진정한 지식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먼저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된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것이 되신다.⁵⁹⁾

웨슬리는 신자가 성령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율법이 신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즉 구약의 새언약(신 30:6; 렘 31:33; 겔 36:25-28)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보았다. 이 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해 하나님의 율법 역시 동일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계시하신다. 율법이 신자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율법이 계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죄인과 율법이 반목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율법을 혐오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으로 수용되어 사랑받게 되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깨달아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들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즉 새로운 영적 섭리를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즉 모세 시대의 율법 조문 때문에 외면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롬 7:1-6).⁶⁰⁾

59) *ENNT* Heb 8:12.

웨슬리는 기독교 시대의 특별한 은혜인 더 깊은 순종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속에서 일하심”⁶¹⁾으로도 설명했다.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능히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이다.⁶²⁾ 성령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흘러 들어가 그들로 주님의 율법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⁶³⁾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일 3:8-9)라는 말씀은, 단지 죄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에 관한 말씀이 된다.⁶⁴⁾

웨슬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죄의 필연성)를 벗어나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죄의 불가능성)가 아닌 죄를 이기는 능력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능력을 부음받는 것이다.⁶⁵⁾ 따라서 웨슬리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성경의 전체 취지와 일치하도록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0)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 서론. 2-3.

61) 설교, “산상설교 (9)”, 5.

62)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I. 11.

63)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 IV. 4.

64) *ENNT* I John 3:8-9.

65)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 1 - II. 30.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도 그러합니다”⁶⁶⁾라고 말한다. 웨슬리의 특징적 교리로서 마음과 삶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완전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웨슬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표현으로서 율법이 인간의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삶 모두에서 규범적 위치를 상실한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신자의 거룩함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요구는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통해 충족된다. 비록 행위언약 시대처럼 인간이 실수나 언약함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은 성취될 수 있다. ⁶⁷⁾

성령의 능력 부으심에 기초해 개혁주의 전통과 구별되는 웨슬리의 언약신학의 특징은 성결(완전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다. 웨슬리는 “성결은 하나님의 역사”이며,⁶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⁶⁹⁾라는 강조를 통해, “성령의 현존은 신자의 마음속의 선한 의도를 실제로 선한 감정과 말과 행위로 바꾸어 주시기에 충분할 만큼 능력 있는 현존”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성경적 진리로 부각시켰다.⁷⁰⁾ 웨슬리는 “오직 죄를 드러내던 두려움과 속박의 시대”였던 구약 시대에는 죄가 신자를 지배했으나, 신약의 “자비로운 복음의

66) 같은 곳, II. 20-21.

67)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8;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명령 아래 감추어진 은총의 약속”(covered promise)에 관한 웨슬리의 해석은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143-148 참고.

68) 설교, “복음의 보편적 전파”, 13.

69) 설교, “완전에 대하여”, II. 8; “부의 위험성”, II. 20.

70) Lyncurgus Starke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 Study in Wesleyan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106-107.

시대에는 ...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모든 신자에게는” “죄를 온전히 정복할” 능력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⁷¹⁾ 나아가 웨슬리는 신약 시대에 누리는 중생의 상태마저도 구약의 유대인이 누린 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성결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언약의 성취를 가능케 했다. 이 시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중생의 은혜만 받은 자라도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한 특권을 누린다. 웨슬리는 성결을 가능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중생한 자라도 죄를 이기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강조한 것이다.⁷²⁾

요약하면, 웨슬리에게서 신약 시대의 우월성은 과거에는 희미하게 계시되었던 율법과 복음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부으심으로 인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성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사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III. 개혁주의 언약신학과의 비교

존 데쉬너(John Deschner)는 웨슬리의 언약신학의 구조를 행위 언약과 은혜언약, 그리고 은혜언약 아래에서의 두 시대(dispensations)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71) *ENNT* Rom 6:14.

72)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II. 11.

1. 행위언약(타락 전 아담): 삶의 규범은 도덕법, 순종이 하나님과 교제의 조건
2. 은혜언약(타락 후 인류): 삶의 규범은 도덕법,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의 조건
 - a. 모세 시대: 삶의 규범은 도덕법, 제사의식을 통한 화해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 신앙이 문자적 순종을 낳음
 - b. 복음 시대: 삶의 규범은 도덕법,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 사랑에 의한 영적인 순종이 신앙을 입증⁷³⁾

데쉬너는 웨슬리 언약신학의 구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조를 따랐다고 주장하며,⁷⁴⁾ 알버트 아우틀러(Albert Outler)는 웨슬리 언약신학에 영향을 끼친 언약신학자들을 더욱 자세히 언급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외에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와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뿐 아니라, 웨슬리가 「기독교총서」(A Christian Library)에 그 저작물의 발췌를 수록한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아이작 암브로우스(Isaac Ambrose),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등을 포함시킨다.⁷⁵⁾ 그럼에도 데쉬너나 아우틀러는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는 특정하면서도, 그들과 구분되는 웨슬리 언약신학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 개혁주의와 웨슬리

73)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94-98, 112-114.

74) 같은 책, 112. 미주 15번.

75) BE 1:203. 각주 2번 참고.

의 언약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특징과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1. 이중예정의 실행수단으로서 언약신학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언약신학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개혁주의 이중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보완한 것이 언약신학이라고 이해한다. 우병훈은 예정과 언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정은 일방적인 데 반해 언약은 쌍방적이다. 예정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밖에서 ... 일어난 일인 데 반해, 언약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유지된다. 예정은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언약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진행된다. 예정에서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만,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기다리신다. 예정은 절대 파기될 수 없지만, 언약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다. 예정에서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언약에서 하나님은 신자와 그 자녀들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신다. 예정은 단 한번의 결정이지만, 언약은 구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독특성이 고려되지 않지만, 언약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다함께 고려되는 것 같다. 예정은 폭이 좁고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약의 틀은 범위가 넓고 택자(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가 아니라도 들어와 있는 것 같다.⁷⁶⁾

76)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제26권 (2013년), 302.

우병훈의 지적처럼 칼빈은 실제로 언약신학을 통해 인간의 책임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집단적 선택과 좁은 의미의 개인적 선택을 구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공동체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심⁷⁷⁾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개인은 언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⁷⁸⁾ 비록 은혜언약의 체결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거짓 없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⁷⁹⁾을 통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언약신학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언약을 “예정이 실현되는 방식”⁸⁰⁾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택자와 유기된 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언약신학 이해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는 행위언약을 맺으셨으나, 타락 후 인류와는 은혜언약을 맺으셨다는 큰 뼈대에서 웨슬러 언약신학 구조와 대체로 일치한다.⁸¹⁾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

77) 존 칼빈, 『기독교강요』, III. 21. 5.

78) 롬 9:6, 창 17:7, 25:23, 겔 16:21, 마 15:24에 대한 칼빈의 주석; 신명기 10:15-17 설교.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XXVII (=corpus Reformatorum LV)*, eds., cuilie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msvigae: apud C. A. Schwetzke et Filium, 19884), 47. 출처는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307, 각주 24-25번에서 인용.

79) 『신명기 강해 2』, 곽홍석 역 (서울: 서로사랑, 2010), 165, 167, 168.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309에서 재인용.

80)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313.

81) 칼빈에게서 타락 전 아담의 행위언약 주장은 피터 A. 릴백,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12), 423-464, 타락 후 아담과 은혜언약을 맺으신 것에 관해서는 같은 책, 213-241 참고.

후 인류와 새롭게 은혜언약을 맺으심으로 행위언약은 폐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퍼킨스는 타락 전 아담에게는 보상의 약속 없이 징벌의 위협만 주어졌다는 점에서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아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비해 타락 후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은 계약의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아, 타락 후 주어진 율법과 행위언약을 동일시했다.⁸²⁾ 그런가 하면 에임스는 타락 전 아담과 타락 후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 모두가 행위언약의 요소를 지닌다고 보았다.⁸³⁾ 타락 후 율법을 행위언약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은혜언약 시대 안에서 구약보다 뛰어난 은혜의 시대가 신약 시대이며, 신약 시대의 복음 안에서는 구원이 진전되는 정도와 비례해 죄로 인한 정죄와 공포 등 행위언약으로 인한 부산물(after-effect)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고 주장한 코케이우스에게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⁸⁴⁾ 스탠리 로우즈는 에임스의 예를 들어 개혁주의 전통이 타락 후에도 행위언약이 지속된다고 여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타락 전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과 타락 후 인간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사이의 차이는 도덕적 본질에서의 차이가 아니다. 율법이 지닌 도덕적 본질은 지속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율법의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기초로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있다. 에임스는, 아담이 “무죄하고 온전”했을 때 율법에는 “의롭게 하는 힘”이 있었으나 … 인간이 타락한 후 율법은 죄 속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비택자를 “정죄하는 힘”을 가진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행위언약은 비택자에게 항구적 효력을 갖는다. 타락한

82) Rodes, *From Faith to Faith*, 43-46.

83) 같은 책, 46-49.

84) 같은 책, 51-58.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행위언약의 요구 아래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타락 후 동일한 율법이 택자에게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택자에게는 은혜언약이 적용되므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도 않고, 율법으로 정죄 받지도 않는다.⁸⁵⁾

이제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개혁주의 전통은 율법의 요구 자체를 행위언약과 동일시 해, 타락 후에도 여전히 행위언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여긴다. 동시에 타락 후 새롭게 시작된 은혜언약은 택자에게 적용해 구원으로서의 예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락 전 아담과는 행위언약. 삶의 규범은 도덕법, 순종이 하나님과 교제의 조건
2. 타락 후 인류에게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모두 유효. 율법의 요구는 행위언약,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은혜언약
 - a. 유기된 자: 행위언약 충족 불가능 → 심판의 근거로 작용
 - b. 선택된 자: 행위언약 충족 불가능 → 그리스도께 가서 은혜언약의 혜택 받음⁸⁶⁾

85) 같은 책, 48.

86) 스탠리 로우즈 역시 이를 정확히 설명한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언약신학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행위언약의 지속으로 보는 것이, 은혜언약이 택자를 위한 은총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 확실히 행위언약의 지속성 및 온전한 순종의 불가능성으로 모세의 율법은 택자로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자극해 은혜언약의 혜택을 받게하는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비택자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택자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 스스로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게 만드셨기에, 비택자는 변경불가능하도록 철저히 은혜언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개혁주의에는 예정과 언약의 관계를 서로 보완적이라고 보는 관점과, 언약이 예정에 종속된다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두 관점 모두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전자는 언약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논의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에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를 덧붙여 성경을 이해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후자는 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언약이 예정론 아래 종속되어 예정을 실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더 큰 틀 속에서 언약신학이 제한적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이중예정에 초점을 둔 개혁주의 신학을 극복하거나 보완하기보다, 예정론의 하부구조로서 유기와 선택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정의 방식을 설명하는 특징을 보인다.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도식에서 모든 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신의 작정에서 기인한다. 은혜언약은 택자를 위해 그 작정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퍼킨스의 말대로 은혜언약을 뒷받침하는 기초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 속에서 구원 받을 모든 자를 선택하시는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모든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 중 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임스는 이에 대해 “이러한 중보자는 한 시대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영원을 위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어린양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계 13:8). 오직 때가 왔을 때 나타내신 바 되셨을 뿐(골 1:20; 딤후 1:2; 벰전 1:20), 그의 중보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수용하심에 의해 이 중보는 태초부터 충분하고도 효과적이었다”고 선언한다.⁸⁷⁾

배제된다.” Rodes, *From Faith to Faith*, 66.

웨슬리 언약신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기초한 것이기에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웨슬리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행위언약을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즉 타락 전 아담과만 맺으신 언약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는데,⁸⁸⁾ 이는 웨슬리가 율법의 요구 자체를 행위언약과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웨슬리는 인간이 타락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방법으로는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을 완전히 종결짓고 그 대신 은혜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설명했다.⁸⁹⁾ 이러한 웨슬리의 설명에서 행위언약이 타락 후 인류에게도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요구를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이다. 스탠리 로우즈는 이를 매우 통찰력 있게 설명한다.

웨슬리 언약신학이 청교도 언약신학자들의 주장과 달라지는 지점은 행위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퍼킨스처럼 에임스도 도덕법 자체를 행위언약의 주된 특징으로 여겼다. 도덕법과 행위언약은 모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법이 영원하듯 ... 행위언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활동한다고 본 것이다. ... 그러나 웨슬리는 도덕법이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행위언약의 지속이나 종결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 설명한다. ... 인간이 타락한 이상 행위언약은 지속되지 않는다. 도덕법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87) 같은 책, 63.

88) 같은 책, 59-61.

89) Plain Account, 84;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의”, I. 1-3.

행위언약이 지속적이거나 다시 활동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다. 웨슬리가 볼 때, 인간이 가졌던 본래의 무죄한 상태는 더 이상 인간의 특징도, 가능성도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후로는 행위언약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⁹⁰⁾

웨슬리에게 죄인을 향한 율법의 엄격한 요구는 행위언약을 지속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왜 행위언약이 폐지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언약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했는지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은혜언약의 수립은 죄인이 행위언약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율법의 엄격한 요구는 행위언약이 지속되지 않고 종결된 이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언약신학을 전수받았지만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내용을 사려깊게 검토해 수정하고 교정했다”⁹¹⁾는 스탠리 로우즈의 평가는 옳다. 웨슬리의 수정은, 은혜언약의 배타적 관할 범위를 신구약 전체로 확장함과 동시에 인간 타락 후 행위언약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못박아, 예정론 중심의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아르미니우스주의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⁹²⁾ 웨슬리 언약신학은 행위언약을 폐기함을 통해, 죄인의 유기를 목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둔 언약신학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다.⁹³⁾

90) Rodes, *From Faith to Faith*, 70.

91) 같은 책, 59.

92) 같은 책, 64-65.

2. 성결에 대한 부정으로서 언약신학

개혁주의 전통과 웨슬리의 언약신학 이해의 차이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성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판단에서도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개혁주의 언약신학에서처럼 율법이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 전 아담에게와 같은 완전하고 엄격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결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성결의 성취는 불가능하다. 퍼카이저(W. T. Purkiser)는 율법을 행위언약과 동일시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모든 것, 또는 그 뜻에 조금이라도 순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죄로 여길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는 절대적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한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그 정황과 원인이 무엇이든, 율법의 절대적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유한한 피조물도 그러한 실패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엄격한 죄의 정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⁹⁴⁾

퍼카이저는 이 언급에서 개혁주의와 웨슬리의 언약신학 이해의 또 다른 차이를 선명히 드러낸다. 개혁주의의 행위언약의 계속성

93) Rogers, “The Concept of Prevenient Grace in the Theology of Jon Wesley”, 113-127.

94) W. T. Purkiser, *Conflicting Concepts of Holiness: Some Current Issues I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53), 46-47.

주장은 죄를 매우 엄격하게 정의한다. 웨슬리는 그 정의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죄없는 완전’(sinless perfection)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⁹⁵⁾ 타락 후 인간은 아무리 경건해도 율법을 이해하는 능력 및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⁹⁶⁾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타락 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타락 전 아담에게나 가능했을 행위의 “완전무결함”이 아니라, 은혜언약이 요구하는 신앙의 열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타락 전 아담에게나 가능했을 완전무결함에 대한 요구를 사랑에 대한 요구로 대체하셨다”⁹⁷⁾는 것이다. 웨슬리는 1760년 6월 19일 사무엘 펄리(Samuel Furly)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낙원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처럼 완벽히 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지금은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의무였던 율법을 행할 사람이 현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피할 능력이 있었기에 피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그럴 수 없는 내게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도, 율법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⁹⁸⁾

95) *BE* 3:85.

96) *Letters* 4:98.

97) *Plain Account*, 85; 설교, “인내에 대하여”, 10; *Letters* 4:155.

98) *Letters* 4:98.

웨슬리는 은혜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비고의적으로 범하는 실수 사이를 구분한 후, 죄를 전자와는 연결시켰으나 후자와는 연결시키지 않았다.⁹⁹⁾ 성경은 죄를 판별할 때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사람은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수는 영혼이 혈육에 거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우리는 ... 수시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고 ...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러한 잘못이 본질상 죄는 아닙니다. ... 죄로 불러 마땅한, 율법을 알면서 고의로 범한 것만이 아니라, 부당히 죄로 불리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생각 없이 범한 것도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 그렇기에 나는 “무죄적 완전”(sinless perfection)이라는 말을 결코 쓰지 않습니다. ... 그런 잘못을 죄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 그것을 죄로 부르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증보자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최악으로 무지하거나 최고로 오만하고 외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부르려는 사람은, 자신이 죄로 불러야 마땅한 죄와 그렇지 않은 결함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 만일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죄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겠습니까?¹⁰⁰⁾

웨슬리는 율법의 비고의적 위반 역시 죄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99) 설교, “완전에 대하여”, II. 9.

100) Plain Account, 53-56.

계속적 중보를 통한 씻음 없이는 사람이 결코 거룩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율법의 비고의적 위반마저 배제한 완벽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개혁주의 전통이 세상에서 성결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향은, 율법의 고의적 위반 뿐 아니라, 무지와 실수 등 죄가 아닌 연약성에서 기인한 율법의 비고의적 위반까지도 죄에 포함시키는 데서 기인한다.¹⁰¹⁾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실수를 고의로 율법을 어긴 반역과 동일시 하시며, 또 인간의 연약성조차도 의도적 불순종처럼 악하게 여기시므로, 모든 실수와 연약성을 초월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가?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은 결코 무지와 실수와 연약함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기능의 완벽함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예로, 웨슬리는 성경에서 노아를 “완전한 자”(창 6:9), 욥을 “온전한 자”(욥 1:1,8)로 묘사하는 구절,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라”(마 5:48)는 주님의 명령, 또는 바울이 언급한 “우리 온전한 자들”(고전 2:6),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빌 3:15) 등에서의 온전함은, 비고의적 실수나 인간적 연약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일 수 없다고 보았다.¹⁰²⁾ 그 온전함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순수한 의도와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비의도적 결함이나 실수, 연약성을 모두 죄로 여기면 성경이 온전하다고 언급한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101) 델빈 디어터 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1), 63-64, 106-107.

102) Plain Account, 57.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성결에 대한 부정과 죄의 합리화만 남게 된다.¹⁰³⁾

웨슬리에게, 인간이 타락한 후 행위언약이 폐해진 것은 인간이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완벽히 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언약을 세워 인간의 완전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언약의 요구인 완벽한 행위의 기준을 은혜언약 시대에 잘못 적용해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경건한 자도 죄인이며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주장은, 은혜언약 시대의 불완전한 사람에게 타락 전 아담과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는 이미 철폐된 행위언약의 기준을 은혜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신자에게 무리하게 적용해 신자를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심각한 오류이다. 은혜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를 행위언약이라는 성취 불가능한 요구 아래에 가두어 죄에 묶어두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은혜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은 타락 후 인간의 연약성을 고려해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율법, 연약성을 지닌 신자의 사랑의 능력과 균형을 맞춘 율법의 요구라 할 수 있다.¹⁰⁴⁾

3. 전가 교리의 뼈대로서 언약신학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율법의 요구를 행위언약과 동일시 함으로

103) Plain Account, 56.

104) Letters 4:155.

인한 또 하나의 결과는,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¹⁰⁵⁾ 개혁주의자들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행위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결과는, 칭의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음(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으로써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를 전가(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받아야만 이루어진다는 결론이다. 행위언약의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신자의 불완전한 의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전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1765)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란,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죄용서 받고 용납되는 것은, 현재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이나 과거에 그들 속에 있었던 무엇, 그들이 미래에 할 수 있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고난 받으신 일 때문임”¹⁰⁶⁾ 을 가르치는 교리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이 진리는 기독교의 본질이자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토대며 … 교회의 흥망이 달린 진리이자 … 구원 얻는 신앙의 기둥과 초석,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정통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기예, 이 믿음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할 것”임을 경고했다.¹⁰⁷⁾ 올바른 그리스도

105) 칼빈(기독교강요, II. 16. 5)을 비롯해 테오도르 베자, 존 오웬,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벨코프, 찰스 핫지 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개혁주의 신학자 목록과 주장은 신호섭, 『개혁주의 전가 교리』 (서울: 지평서원, 2016); 문병호, 『기독교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956-1018 참고.

106)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5.

107) 같은 곳, 서론. 4.

의 의의 전가 교리는 “인간의 행위로 인한 공로를 배제하고 …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성경적 진리의 선언이라는 것이다.¹⁰⁸⁾

그러나 웨슬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적절하게 가르치면, 사람이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는가?”¹⁰⁹⁾라고 추론해 율법무용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함을 지적한다. 웨슬리가 이런 위험성을 가졌다고 여긴 부적절한 전가 교리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을 믿는 신앙이 신자의 죄를 씻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행위언약의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역시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야 한다는 방식의 설명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신앙으로는 은혜언약만 충족시킬 뿐 행위언약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모두가 전가되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중전가 교리이다. 웨슬리는 이런 전가 교리에서는 “실제로 율법을 악명 높게 깨뜨리며 살아가는 죄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 순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것이 죄인으로 “거룩함 없이도 흡족한 상태가 되게 해 …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율법 위반자’로 살다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¹¹⁰⁾ 또한 전가 교리를 그런 방식으로 제시한 결과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믿음

108) 같은 곳, II. 6.

109) *The Works of John Wesley*, ed. Thomas A. Jackson (14 vols.), 10:315.

110) Herbert. B. McGonigle, *Sufficient Saving Grace: John Wesley's Evangelical Arminianism* (Carlisle: Paternoster, 2001), 226.

이 성결을 낳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성결의 필요성을 대신한다”는 그릇된 신념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웨슬리는 그런 전가 교리는 “심지어 믿음이 율법을 지킬 필요를 전적으로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셋길로 빠져 (1)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시기 전만큼 성결이 필요하지는 않다거나 (2) 성결이 필요해도 그 정도가 낮아졌다거나 (3) 신자는 불신자만큼 성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¹¹¹⁾고 경고한다. 웨슬리는 목회사역 중에 전가 교리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순종과 성결에서의 자유”로 변질시켜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하는 죄”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수없이 만나보았다. 따라서 부적절한 전가 교리의 심각성을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알리고 그 폐해를 경고한 것이다.¹¹²⁾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가 율법무용론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신학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이중전가 교리를 부적절하게 강조해,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단번에 씻긴다는 식의 가르침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신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 용서받는 죄를 “과거의 죄”(롬 3:25; 벧후 1:9)로 한정하고,¹¹³⁾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자백”함으로써 회개할 것(요일 1:9)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것”(마 3:8; 눅 3:8)을 강조했다.¹¹⁴⁾ 회개와 돌이킴, 순전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관계의 온전함을 전제하지 않는 무분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용서 선언은, 마치 과거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111) 설교,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 II. 1-2.

112) 같은 곳, II. 1-2.

113)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 3;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 5.

114) 설교, “옥스포드의 위선”, I. 7.

남발과도 같은 오류이자, 회개와 신앙이라는 조건을 없앤 채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곧바로 죄인에게 적용하는 만인구원론과 같은 오류로 본 것이다. 이에 웨슬리는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뉘우치는 마음”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한다.¹¹⁵⁾ 그렇더라도 용서 받는 죄를 “과거의 죄”로 한정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요일 1:9)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용서를 베푸실 것”¹¹⁶⁾임을 가르친다. 따라서 웨슬리의 죄 고백과 변화의 강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한번 믿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면죄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늘 현재적 관계의 온전함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효력을 죄책의 용서로 한정짓지 않고,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의 용서”와 “현재적 죄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포함함을 가르쳐 신자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¹¹⁷⁾ 셋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그 표현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했다.¹¹⁸⁾ 만약 그 표현을 부득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나 인간의 죄를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대상처럼 설명하지 말고, 신자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 되었음을 뜻하는 성경적 용어로 설명해야 함을 강조했다.¹¹⁹⁾ 나아가

115) *ENNT* 1 John 1:8-10.

116) *ENNT* Matt. 18:22.

117) Ted M. Dorman, “Forgiveness of Past Sins: John Wesley on Justification: A Case Study Approach”, *Pro Ecclesia* 10, no3(Sum2001), 276;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II. 2.

118)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17-20.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보다 수동적 의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신이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혜택을 오직 칭의와만 연결지었지 성화와는 연결짓지 않았다.¹²⁰⁾ 또한 칭의 이후에는 실제적 의가 즉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했다.¹²¹⁾ 웨슬리는,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리스도의 모형”이 분명하지만, 도덕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설명에 반대해,¹²²⁾ 순종은 전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¹²³⁾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웨슬리 언약신학은 최후의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인다. 행위언약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는 어린양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주장한다. 다른 의로는 행위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⁴⁾ 그러나 행위언약의 폐지를 가르친 웨슬리는 성도가 입을 예복은, 비록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종처럼 완벽하고 철저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은혜언약의 요구인 참 신앙에서 비롯된 신자 자신의 신앙의 열매로 해석한다. 웨슬리는 설교 “혼인 예복”(1789)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119) BE 1:455.

120)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0; Kenneth J.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Holy Love and the Shape of G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175;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9-20.

121)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2;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76.

122)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115.

123)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112; Albert C. Outler ed., *John We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126.

124) 신호섭, 『개혁주의 전가 교리』, 126.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계 19:8)라는 말씀을 통해, 신자가 입을 혼인 예복은 신자 자신의 행실임을 강조했다.¹²⁵⁾ 동일한 강조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마태복음 25:34-46 주해에서도 나타난다. 이 구절에서 웨슬리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35-36)라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판결의 근거로 삼으실 행위는,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라, 신자 자신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신자가 상속할 “예비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이며,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으로 역사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해,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대한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즉, 웨슬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원천을 첫째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둘째는, 그런 은혜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갈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는 것이다.¹²⁶⁾ 따라서 웨슬리가 ‘성도 자신의 옳은 행실’을 강조한 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 때 성도의 행위가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입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¹²⁷⁾ 그렇기에 성화는 구원의 직접적 조건은 아니더라도, 직접적 조건인 믿음을 입증하는 간접적 조건은 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 칭의의

125) 설교, “결혼예복에 대하여”, 7-10.

126) ENNT Matt 25:34.

127)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II. 12.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종적 칭의의 조건이 된다.¹²⁸⁾

정리하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참 신앙을 입증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개혁주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의한 완벽한 행위여야 한다고 답하는 데 비해, 웨슬리는 그 행위가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었음을 입증할 신자 자신의 행위로 본다. 개혁주의 전통과 비교할 때 웨슬리 전가 교리는 크게 두 가지 동기에 기초해 있다. 한편으로, 웨슬리는 칭의에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어떤 주장도 배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웨슬리는 신자 자신의 의가 경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율법무용론도 반대한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종, 즉 그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은,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부여받아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성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⁹⁾

지금까지 언급한 개혁주의와 웨슬리 언약신학 간 차이에 덧붙여 마지막으로 왜 웨슬리는 이 모든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가져오는 행위언약 폐지를 주장한 것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은혜언약 하에서 신자가 누리는 은혜는 행위언약 아래에서 아담이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이기 때문이다. 설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1782)에서 웨슬리는 아담이 타락 전 가졌던 원의(original righteousness)의 상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성취하는 기능적 역량의 손상, 낙원의 탁월한 영적, 생태적 환경과

128) ENNT I Tim 6:19; Harald Lindström,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46), 124-125.

129) Lindström, *Wesley and Sanctification*, 74-75.

비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 등 타락 후 신자의 내적 상태와 외적 상황은 타락 전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매우 열등함을 인정한다.¹³⁰⁾ 그렇더라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관계의 열등함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빚어내시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아담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와 보호자로 사랑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안다. 아담은 성자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는 알았으나, 그리스도인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아담도 성령을 알았겠지만, 타락한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다.¹³¹⁾ 즉, 그리스도인은 아담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의 더 깊은 요소 즉 타락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¹³²⁾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심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담에게는 불가능했을 사랑의 깊이를 가능케 했다(요일 3:16).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것처럼 사랑할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¹³³⁾ 이처럼 웨슬리는 타락 이후 보이신

130) 설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서론, 1-2.

131) 같은 곳, I. 1-3.

132) 같은 곳, I. 4.

133) 같은 곳, I. 5-6.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서 아담에게는 불가능했던 차원의 사랑과 거룩함을 가능케 하신 것으로 보았다.

종합하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능과 환경에서 타락 전 아담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타락 후 드러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 및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응답적 사랑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큰 거룩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a capacity of attaining more holiness and happiness on earth) 되었다”고 확인한다.¹³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언약 아래에서 신자들을 비록 아담보다 못한 기능과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쏟아부어 그들에게서 더 큰 거룩함을 빚어내신다는 것이다. 은혜언약 하에서 신자들의 기능적 온전함은 아담보다 열등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 성결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보다 깊이있고 수준높은 것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영혼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또 순교했던 오순절 이후, 그리고 오늘의 참된 제자들이 타락 전 아담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일 수 있다. 은혜언약이 빚어내는 거룩함은 행위언약 하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은혜언약은 행위언약보다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도록 위대한 은혜언약을, 이미 폐지된 행위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것으로 축소시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뒤섞지 말아야 할 이우다.

134) 같은 곳, I. 1.

IV. 나가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웨슬리 신학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그의 언약신학의 뼈대와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비교해보았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발견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의 개혁과 연합, 성숙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웨슬리의 언약신학적 성결론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태만과 방종을 합리화하는 율법주의와 율법무용론 사이에서의 혼동 및 신앙과 삶의 부조화를 바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신자가 내적 성품과 외적 삶 모두에서 거룩해야 할 필연성을 제시하는 개신교의 지극히 중요한 신학적 자산이다. 웨슬리 언약신학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으시고, 계속적 용서와 용납을 통해 관계를 보존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언약을 부과하시는 주권자로서 그 백성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거룩함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거룩함의 동기, 목표,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울 것이다. 언약신학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대한 신앙과 신자의 거룩함의 능력 모두를 강조해 신앙과 윤리의 균형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개신교의 영혼구원과 사회적 리더십 발휘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개신교 내 여러 전통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해 온 태도 역시 원인이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루터와 칼빈

신학은 시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져 온 것에 비해, 웨슬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뿐 아니라 칼빈과 청교도의 언약신학 전통을 전수받아 신학의 자양분으로 삼은 루터와 칼빈의 제자임에도 이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이 연구는 웨슬리 언약신학이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이중예정론을 벗어나지 않고, 행위언약으로 유기의 근거, 은혜언약으로 선택의 근거를 설명한다. 또한 타락 후 인간은 행위언약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성결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전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이에 비해 웨슬리 언약신학은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행위언약으로 유기 교리의 근거를 삼는 개혁주의의 주장을 부인하고, 은혜언약 하에서는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아르미니우스적 수정을 가한다. 또한 웨슬리 언약신학은 은혜언약 아래에서 유대교 시대보다 뛰어난 계시 및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기독교 시대의 특별한 은혜로 설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성결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의 부적절한 설명이 율법무용론을 낳게 됨을 경계하면서, 참된 구원의 신앙의 열매로서 신자 자신의 성결의 자리와 필요성을 마련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과 웨슬리 신학 모두에서 언약신학은 기존에 잘 알려졌던 신학체계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두 신학 간 차이를 선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개혁주의와 웨슬리 언약신학이 종교개혁적 신앙고백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즉, 언약신학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전 과정을 은혜로 주도하심을 잘 밝히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함을 밝힌다. 또한 타락 전 아담과 달리 타락 후 인류는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구원 받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없이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 점에서 언약신학은 개신교 내 서로 다른 전통이 공유하는 중요한 신학적 공통분모이자 대화의 통로로서 개신교 내부의 신학적 불일치를 좁히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화두인 지금, 한국 개신교가 언약신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교회의 하나 됨과 사회를 이끌 영적 지도력 회복을 위해 개신교의 다양한 전통이 함께 노력해야 할 주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제시한 인간의 죄의 어두운 현실이 성경적 진리에 빛을 비추듯, 웨슬리가 강조한 성결의 은혜는 인간의 무능함만이 강조될 때 개신교인이 빠지기 쉬운 영적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소망과 간구, 그 실현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현재의 부패와 무력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국 개신교는 교단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 일깨우신 성결의 진리를 통해 큰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Mcneil, John. T. 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60.
- Outler, Albert C. ed. *The Works of John Wesley*, vols. 1-4, Sermons. Nashville: Abingdon, 1984-87.
- . *John We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Wesley, John.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7.
- .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 . *Explanatory Notes on the Old Testament*.
- .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John Telford, 8 vols. London: Epworth Press, 1931.
- .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 . *The Works of John Wesley*, ed. Thomas A. Jackson (14 vols.),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설교전집』(총 7 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차 자료

- E. W. 헝스텐베르크. 원광연 역. 『구약의 기독교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김병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언약신학.” *신학정론* 32(2) (2014), 325-345.
- 노창용, “계약과 인간의 응답에 관한 한 고찰.” 『대학과 복음』 4 (2000), 68-94.
- 로버트 콜만. 『새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탐구』.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2002.
-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 마이클 브라운. 자크 킬 공저, 조호용 역. 『언약신학으로의 초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 마이클 호튼 저. 백금산 역. 『언약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 멜빈 디이터 외.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1.
- 문병호. 『기독교론: 증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서요한. “언약사상의 역사신학적 전통.” 『개신논집』 2 (1995), 157-183.
- 신호섭. 『개혁주의 전가 교리』. 서울: 지평서원, 2016.
- 아더 핑크. 김의원 역. 『하나님의 언약』.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제 26 권 (2013 년), 297-331.
-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19.
- 토마스 맥스미스키. 김의원 역. 『계약신학과 약속』.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팔머 로벗슨. 김의원 역.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피터 A. 릴백.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12.
- 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황덕형. “웨슬리의 계약사상 이해.”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 제 2 회 월례연구모임 (2014. 11.26.) 자료집.

Collins, Kenneth J. *The Theology of John Wesley: Holy Love and the Shape of G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Cox, Leo G.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8.

Deschner, John. *Wesley's Christology: An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Francis Asbury Press, 1960, 1985.

Dorman, Ted M. “Forgiveness of *Past Sins*: John Wesley on Justification: A Case Study Approach.” *Pro Ecclesia* 10, no. 3 (Sum 2001).

- Lindström, Harald.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46.
- McGonigle, Herbert. B. *Sufficient Saving Grace: John Wesley's Evangelical Arminianism*. Carlisle: Paternoster, 2001.
- Purkiser, W. T. *Conflicting Concepts of Holiness: Some Current Issues I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53.
- Rodes, Stanley J. *From Faith to Faith: John Wesley's Covenant Theology and the Way of Salvation*.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3.
- Rogers, Charles A. "The Concept of Preventive Grace in the Theology of John Wesley."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7.
- Starkey, Lycurgu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 Study in Wesleyan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 *Abstract*

The Wesleyan View of Hol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Covenant Theology

— A Study for the Renewal, Reunion and Elevating Maturity of
Korean Protestantism

Kiyeong Chang

(Pyeongtaek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is article introduces John Wesley's covenant theology: its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implications concerning entire sanctification. Wesley dealt with various concepts of covenants, dispensations, and types of the law, following the outline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1. Covenant of works (applying to Adam alone): moral law as norm, obedience as condition of fellowship with God. 2. Covenant of grace: moral law as norm, faith as condition of fellowship with God. Under covenant of grace: a. Mosaic dispensation: moral law as norm, faith in ceremonial mediation, leading to obedience of the letter, as condition of fellowship. b. Gospel dispensation: moral law as norm, faith in Christ-mediation – whose authenticity is attested by spiritual, loving obedience – as the condition of fellowship with God. Wesley taught salvific sufficiency of both Mosaic dispensation and Gospel dispensation, and that under Gospel dispensation, God gives not only more excellent revelation but also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for sanctification.

In contrast, Reformed covenant theology supports double

predestination, identifying the demands of the law with the continuity of covenant of works, and then applying covenant of works to the damned, and covenant of grace to the elect. It also denies the possibility of entire sanctification in this life, insisting that believers cannot satisfy the demands of covenant of works. It also insists that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 as well as passive obedience is necessary for justific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s of both covenant of works and covenant of grace.

Reformed covenant theology and Wesley's covenant theology coincide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preserve the essence of the Reformation theology. So covenant theology can help dialogu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formed and the Wesleyan traditions.

주제어

언약신학, 행위언약, 은혜언약, 존 웨슬리, 성결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Covenant Theology, Covenant of Works, Covenant of Grace, John
Wesley, Holiness,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 논문투고일 2019. 05. 11. 심사완료일 2019. 05. 22. 게재확정일 2019. 05. 25.